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설비투자·규제개선·금융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환경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탄소 포집설비 운용기업 현장 방문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3월 14일 오전 탄소 포집설비 운용 기업인 에스지씨에너지(전북 군산시 소재)를 방문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에스지씨에너지는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기업으로, 탄소 감축을 위해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탄소 포집설비를 구축했다. 이듬해인 2023년 12월부터 이 설비를 본격 가동하여 용접용 가스 제조업체 등에 활용하여 연간 약 6만 3천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김완섭 장관과 안호영 위원장은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의 현황과 발전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기업의 애로점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검토 및 강구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기후테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라며,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총괄부처로서 기업들이 ‘기후테크’ 도입의 최적시간(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비지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국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붙임 탄소중립설비 지원업체 현장방문 계획. 끝.

담당 부서	환경부 기후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담당자	주무관	김소영 (044-201-659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현장방문 개요**

- (일 시) '25. 3. 14.(금), 10:20 ~ 11:20
- (장 소) SGC에너지(주)(舊, 군장에너지) ※ 전북 군산시 임해로 333(소룡동)
- (참석자) 환경부장관, 환경노동위원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경제과장, 새만금유역관리단장(전북청장 직무대리), 환경공단 이사, SGC에너지(주) 대표 등
- (주요내용)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등



□ **세부일정(안)**

시간(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0:20~10:5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소개(SGC에너지(주)) • 인사말씀 • 탄소중립설비 지원 현황(환경공단) • 탄소포집설비 사업개요 및 성과 등 주요 추진현황 설명(SGC에너지(주)) • 애로사항 및 현장의견 수렴 	환경부, 환경노동위원회, SGC에너지(주), 환경공단 등
10:50~11: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회의실 → 현장) 및 현장 시찰 - CCU 사업현장 및 연료전환 설비 등 	SGC에너지(주) 2공장

※ 현장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